

광주·전남 출신 입법부 수장 나오나 이목 집중

여야 오늘 하반기 의장단 후보 선출

박지원·조정식·김태년... 의장 경선 '3파전' '명픽'·'첫 권리당원 표심 반영' 관전포인트

여야는 13일 22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어 갈 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후보를, 국민의힘도 국회부의장 후보를 각각 뽑는다. 양당이 뽑은 후보들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는 6선 조정식·5선 김태년·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 몫 국회의장 후보로는 4선 남인순·민홍철 의원이,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6선 조정태·5선 조배숙·4선 박덕흠 의원이 출마했다.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광주전남 출신 국

회의장 후보가 선출되느냐이다.

20년 전 나주 출신인 임재경 의원이 제17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됐지만 지역구는 서울 노원구 병이었다. 앞서 정래혁 의원(담양·곡성·화순)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시절 제11대 국회의장을 지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13일 의원총회 현장 투표(80%)를 합산해 후보를 선출한다.

전도 출신 박지원 의원은 5선 관록에 전국적인 영향력과 인지도를 갖춘 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기 국회의장 적합도가 가장 높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 최고령임에도 각종 방송 매체에 출연하는 동시에 꾸준한 '금

귀월래(금요일에 지역구로 내려가 월요일에 국회로 복귀)'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면서 당원들에게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관전포인트는 이른바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 작용할 지와 처음 도입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의 향방이다.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특별 보좌관직을 수행하다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사퇴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1·2위를 미리 함께 뽑는 선호투표제 취지를 살려하면서 조 의원을 뽑은 권리당원의 엑스(엑트투터)를 공유해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논란이 조 의원에게는 호재로 작용

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일찌감치 명픽인 조 의원에게 기울어 1차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렇지만 이런 논란이 다수의 의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의원 투표에서는 세 후보 모두 접전을 벌일 경우 총점의 20%가 반영되는 권리당원 표심의 향방이 당선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순천 출신의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을 지내 원내 선거에 상당한 경쟁력을 지녔다는 평가를 토대로 보면 세 후보 비슷한 득표를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선호투표 중 두번째 후보로 누구

를 지지하는지 여부와 새로 도입된 권리당원 표심이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호투표는 후보 투표 시 1순위뿐만 아니라 차순위까지 함께 선택하는 방식이다. 결선투표가 치러질 경우 탈락한 후보를 선택한 투표자의 차순위 선택이 결선 진출자 중 누구였는지를 확인해 합산한다.

한편 오는 29일 임기 종료일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네덜란드 톰 반 캄프 하원의장, 메이 리 보스 상원의장과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5박 7일 일정으로 네덜란드와 캐나다 방문길에 올랐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6·3 지방선거 꼭 투표 하세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2일 광주 서구 베베르 품앗이 본점에서 열린 ‘한 표 굽는 날’ 캠페인에 참여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와 베베르 직원들이 선거병을 홍보하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대한제국광주광주전남지회 150개 제과점과 협업을 통해 매장 내 선거 홍보물을 비치 및 기프티콘과 선거일, 선거 슬로건 등이 새겨진 ‘호밀의 선택 빵’, ‘당근 투표하지 빵’ 등 8가지 종류의 빵을 출시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홍보할 계획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

김영록 “통합특별시 완수 최선... 분열보다 단결” 강조

김영록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이재명 정부 성공과 통합특별시 완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후보는 12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수를 위해 민주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원으로서 민주당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응원한다”며 “건전한 비판을 통해 더 강한 정당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무소속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분열보다 단결이 우선돼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와의 연계성도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전남광주의 미래”라며 “정부가 성공해야 전남광주에 20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가 현실화되고 남부권 새로운 성장축이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전남광주는 전국 최초 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한다”며 “입기를 마친 이후에도 통합특별시 성공과 발전을 위해 계속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민주당 대변인에 전진속 임명 “민생 현장 목소리 전달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진속 의원(광주 북구을·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전진속 의원은 13일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당의 주요 메시지와 정책 방향을 국민께 설명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전 의원은 돌봄국가 전환, 통합돌봄, 여성폭력 대응, 청소년 정책,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현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광주 북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민생회복과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 의원은 “광주와 호남의 목소리, 돌봄과 민생의 현장 목소리를 국민께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돌봄·복지·민생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민생정당이라는 점을 정책과 메시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우 기자 solee235@

민형배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균형’ 출범

학계·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500명 참여 26개 분과 구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밑그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사진)의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할 매머드급 싱크탱크가 문을 열었다.

민형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균형’이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균형은 학계와 연구기관, 산업계,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 정책 플랫폼이다.

공동대표는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과 주정민 전남대학교 대학원장이 맡았다.

싱크탱크는 민 후보가 제시한 성장통합(남부권 신산업 수도 건설), 균형통합(4개 권역 분업·순환 경제), 시민주권(시민이 설계·통제하는 자치정부), 녹색도시(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선도 도시), 기본소득(기본사회·돌봄 기반 최소 보장) 등 5대 원칙 아래 통합특별시의 산업·행정·복지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편성된 26개 분과는 △AI·데이터(김종원 GIST·김수형 전남대 교수) △기후에너지(이승현 동신대·윤진호 GIST 교수) △로봇·제조AX(차원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



사) △반도체·소부장(안선영 한국광용합산업진흥회 본부장) 등의 분야로 구성돼 정책 개발을 추진한다.

선대위는 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21일 정책 빌드 스프린트’ 체제를 가동, 통합특별시 출범 즉시 실행 가능한 ‘100일 액션플랜’과 정책 백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성장’과 ‘균형’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정책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실질적 정책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최대육 예비후보 사퇴... 김대중 지지 선언

“인품·자질에 적합한 인물”

최대육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김대중 예비후보(사진) 지지 선언했다.

최 예비후보는 1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선거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선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통해 행복한 배움과 보람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전남·광주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뜻은

아쉬운 마음으로 접는다”며 “그동안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시·도민께 감사드리며 완주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남은 선거 기간 후보들 간 정책 중심의 선의의 경쟁도 당부했다. 그는 “상대를 헐뜯는 네거티브 선거를 자제하고, 시·도민과 학생들에게 교육감 후보들은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가장 공정한 선거운동 행보를 배움과 보람된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전남·광주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뜻은



하다고 판단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며 김대중 예비후보 지지 의사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지지 후보와 함께 저의 뜻을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대육 후보의 불출마 선언으로 전남광주통합시교육감 선거는 강숙영 전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김대중 현 전남도교육감, 이정선 현 광주시교육감, 장관호 전 전교조 전남지부장 등 4명으로 압축됐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이정선, 지역 미래 연결... 핵심 공약 발표

경제·미래·복지·진학 등 체감형 정책 통해 부동층 공략

이정선 전남광주통합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를 20여일 앞두고 교육의 본질과 지역 미래를 연결하는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단일화 대상인 김해룡·고두갑 전 예비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이후의 로드맵과 핵심 공약을 공개했다.

이날 세 후보는 단순 후보 단일화를 넘어 각자의 핵심 가치를 결합한 ‘교육연합정부’ 수준의 협력을 약속했다. 또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동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세 후보의 철학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우선 경제 분야 공약으로 ‘교육 기본소득 2.0’을 제시했다. 기존 지원책을 확대해 초·중·고 전 학년 대상 ‘꿈드림 교육수당’을 보편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혁신 분야에서는 전남·광주를 ‘K-에듀테크 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에 글로벌 빅테크기업 연구원과 에듀테크 스타트업 유치를 ‘글로벌 교육특구’를 조성해 지역에서도 세계 수준의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365일 온종일 돌봄’



과 방학 중 급식 전면 시행을 약속했다. 자치구별 24시간 긴급돌봄센터를 확대하고 방학 기간에도 학교급식을 제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입시 분야에서는 공교육 중심의 ‘AI 대입 네비게이터’ 시스템을 도입한다. AI 기반 맞춤형 진학 컨설팅과 수능 만점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강남 수준의 입시 정보를 공교육 안에서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전남광주 통합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장애 학생 취업 보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지역 기업과 연계한 취업 쿼터제를 통해 장애 학생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